

高麗時代 平壤 栗里寺址 五層石塔에 관한 연구

전민숙*

I. 머리말
II. 栗里寺址의 위치와 栗里寺址 五層石塔 반출경위
III. 栗里寺址 五層石塔의 양식적 특징
IV. 栗里寺址 五層石塔의 편년과 의의
V. 맺음말

I. 머리말

平壤 栗里寺址 五層石塔은 한반도에 몇 기 남아있지 않은 다각다층석탑으로 현재는 일본의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에 소장 되어있다.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평양의 대동강에서 가까운 栗里에 건립된 석탑으로 기단부부터 탑신부까지 전체가 팔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륜부는 결실되었다. 오쿠라슈코칸은 오쿠라 가이하치로(大倉喜八郎, 1837~1928)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한국, 중국의 유물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20세기 초까지 평양에 있었던 울리사지 오층석탑이 일본의 오쿠라슈코칸까지 건너간 반

*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¹ 고려시대 석탑의 유형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용어 또한 조금씩 다르다. 특히 방형이 아닌 석탑을 일컫는 용어로는 고구려계석탑, 고구려식다각다층탑, 다각다층(형)석탑, 다각형석탑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다각다층석탑으로 하고자한다.

출 경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고려시대 다각다층 석탑은 현재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에 건립되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를 시작으로 시대마다 중요거점으로써 역할을 해왔으며, 고려시대에는 西京으로 지정 될 만큼 제2의 중심도시로 취급되었다. 평양의 사찰은 고구려 때부터 중점적으로 건립이 이루어지고, 寺址조사를 통해서 팔각의 목탑이 다수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팔각의 전통은 고려시대의 다각다층석탑으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각다층석탑은 일반형석탑에 비해 화려함과 장엄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눈에 띄며, 다른 유형의 석탑과도 양식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² 지금까지 다각다층석탑에 대한 연구는 지역적인 한계와 자료의 제한 그리고 개체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연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사찰 종합 도록인 『북한의 전통사찰』이 출간되어 북한의 석조문화재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1867~1935)의 『関野貞日記』와 세키노 타다시 필드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의 공개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석탑의 原形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³ 평양 율리사지 오층석탑은 평양이 아닌 현재 일본에 위치해 있고 상륜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본고에서는 평양 율리사지의 원위치를 찾아보고 일제강점기의 조사 자료를 통해서 일본 반출 경위와 시기를 추측해 보고자한다. 다각다층석탑은 다른 유형의 석탑에 비해 팔각에 의한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석탑으로 특히 고려시대에 지역마다 다양하게 건립되는 석탑의 一面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평양의 대동강을 중심으로 건립된 다각다층석탑인 영명사 오층석탑과 홍복사 칠층석탑과 함께 율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편년을 도출하여 高麗 石塔史에서 갖는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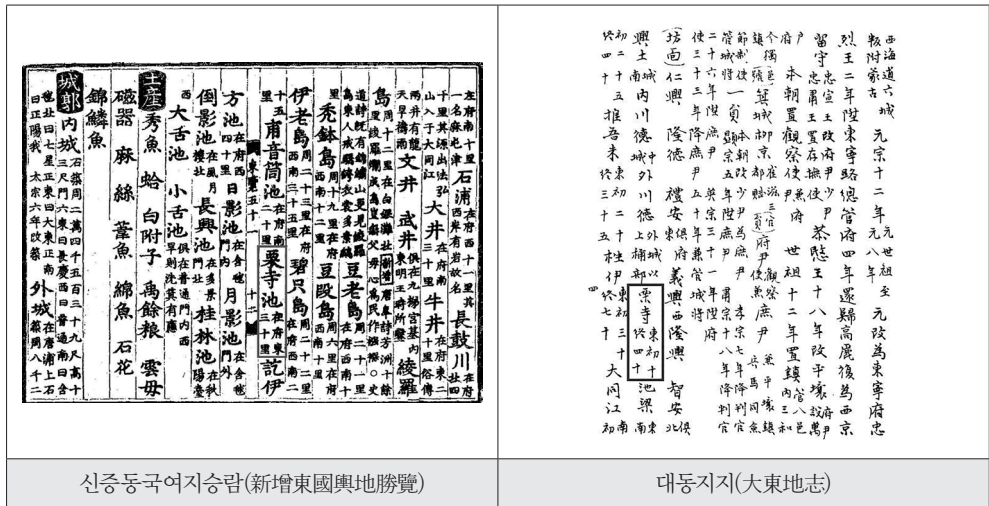
2 다각다층석탑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鄭永鎬, 「高麗時代石塔의 特性에 관한 研究」, 『論文集』 11 (단국대학교, 1977); 진화수, 「韓國多角形多層石塔의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윤창숙, 「高麗石塔의 基壇樣式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정용해, 「고려돌탑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11 (평양: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88); 정용해, 「고려돌탑의 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 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1989); 정영호, 「在日 高麗石塔 二基」, 『文化史學』 1 (1994); 강병희, 「韓國의 多角多層石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대학원 한국예술민속사 박사학위논문 (1995); 전민숙, 「高麗前期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홍대한, 「高麗 石塔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東岳美術史學』 15 (2013); 홍대한, 「月精寺 八角九層石塔의 造塔背景과 建立時期 研究」, 『한국선학』 38 (2014).

3 関野貞, 『関野貞日記』(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세키노 타다시 필드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는 현재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小石川分館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4 다각다층석탑의 건립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고대 중국건축의 8각에 대한 상징성과 고구려 평양 천

II. 栗里寺址의 위치와 栗里寺址 五層石塔 반출경위

平壤의 栗里寺址에 대한 기록은 1520년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平壤府에서 찾아 볼 수 있다(도 1). 山川條에는 ‘栗寺池 동쪽 30리에 있다.’ 라고 쓰여 있다.⁵ 여기서 보이는 栗寺가 栗里寺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찰을 소개하는 佛宇條에는 읍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의구심이 남는다. 다음 기록으로 1866년 완성된 『大東地志』의 11권 坊面에는 ‘栗寺 동쪽



도 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원문

도 이후 팔각목탑지가 등장과 함께 석탑으로 건립된 영탑사의 경우 중국 문물이 대동강을 따라 전래되는 평양 서쪽의 해안 지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는 강병희, 앞의 논문(1995); 遼와 金系 탑파로부터 자극받아 다각탑이 등장했다는 견해는 진화수, 앞의 논문(1982); 과거 고구려에서 유행했던 팔각목탑의 전통 역시 문화적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졌고 고려 건국 초 고구려 계승의식이 팽배할 때 집중적으로 팔각평면의 석탑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는 홍대환, 앞의 논문(2012)이 있다. 중국은 唐代에는 방형석탑이 주를 이루고, 팔각탑은 五代, 宋, 遼를 중심으로 건립된다. 고려의 다각다층탑은 통일신라시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새롭게 나타나는 석탑의 유형으로 지역 적양식과 시대적인양식이 혼합하여 탄생된 탑이라고 할 수 있다. 흥복사 칠층석탑은 면석의 각 면 전체에 표면장엄이 새겨져있는데 이러한 표면장엄은 중국의 남부지방인 浙江省, 福建省 주변에 건립되는 석탑과도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송나라 지역인 양쯔강 이남 남부지방은 고려시대에 무역을 하던 福州, 泉州지방이 있어 평양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밀접식으로 건립되는 遼나라 탑보다는 다각다층탑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평양에만 다각다층석탑이 건립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⁵ 『新增東國輿地勝覽』卷51, 平壤府, 栗寺池在府東三十里.



도 2 海東地圖와 廣輿圖의 栗寺 위치

으로 처음이 10리 이고, 끝이 40리 이다.' 라고 쓰여 있다.⁶ 『大東地志』는 32권 15책으로 구성된 조선후기 地理志로 古山子 金正浩가 편찬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佛宇條에는 보이지 않았던 栗寺가 19세기에 편찬된 地理志에는 등장하는 것은 그 사이에 寺勢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록과 함께 지도에서도 위치를 찾아 볼 수 있다(도 2). 海東地圖(古大4709~41, 1727~1776) 평안도편에는 평안도의 주기가 쓰여 있는데 여기에 '栗寺面 初景十五里終景七十里' 라고 쓰여 있다.⁷ 또한 廣輿圖(古4790~58, 1737~1776)와 海東地圖의 평안도편에 栗寺面이 표시되어있어, 앞서 언급한 『大東地志』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海東地圖와 廣輿圖에 표시되어있는 읍사면은 읍사가 포함되어있는 마을을 읍사면으로 표시한 듯하다.

현재 栗里寺址라고 부르는 명칭은 앞서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栗寺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읍리사지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일제강점기 자료를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읍리사지는 『又玄 高裕燮 全集4- 朝鮮塔婆의 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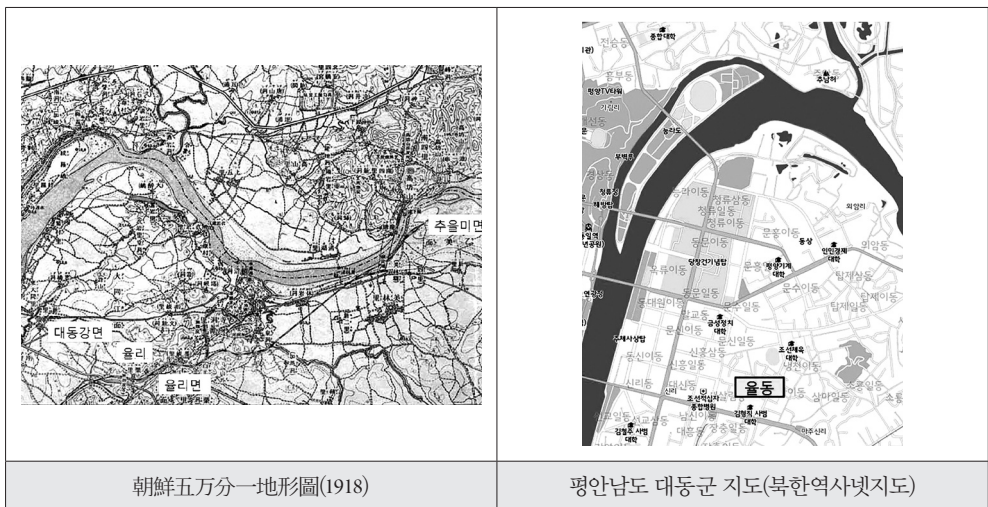
⁶ 『大東地志』11책 卷21, 平安道, 栗寺東初十終四十.

⁷ 본고에서 제시한 지도는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도의 번호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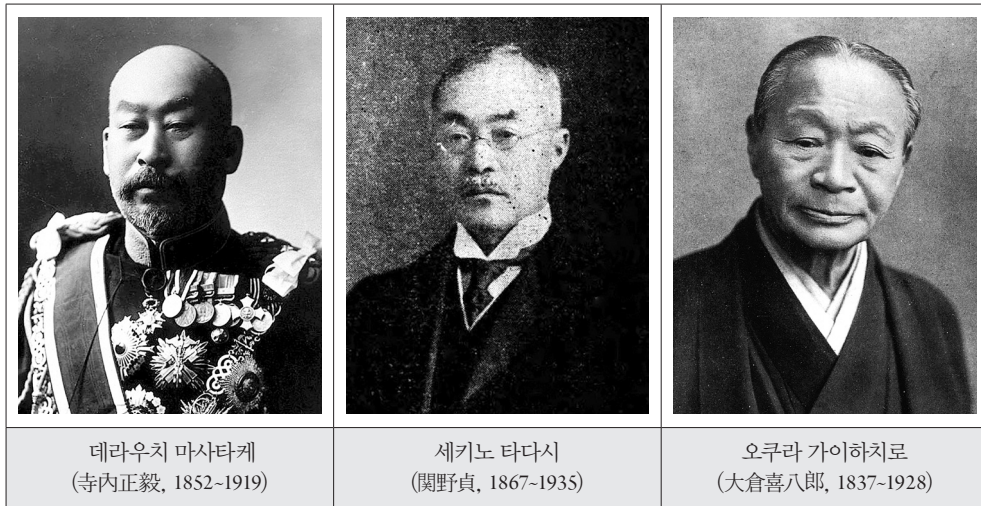
究下』의 책에는 秋乙美面 栗里로 되어있지만 세키노 타다시 필드카드와 『朝鮮古蹟圖譜 6』에는 栗里面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표 1). 특히 1911년 9월 25일에 작성된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카드에는 '柳洞'이라고 동까지 기재되어있다. 일제강점기의 대동군은 17개의 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추을미면과 울리면이 포함되어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朝鮮五萬分一地形圖를 참고하여 보고자한다(도 3). 1918년 平壤東部(平壤二號) 陸地測量部の 지도를 찾아보면 당시 秋乙美面이 아닌 栗里面에 栗里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도를 통해서 울리는 울리면에 속해있지만 大同江面에 더 인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栗寺는 永明寺처럼 대동강에 바로 근접해서 건립되지는 않았지만 대동강에서 멀지 않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래는 栗寺였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마을 이름이 붙이면서 栗里寺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지도에는 栗洞이라고 표기 되어있는데 위치적으로는 栗里의 위치와 동일하다.

〈표 1〉 일제강점기 栗里寺址 위치

자료	위치
又玄 高裕燮 全集4- 朝鮮塔婆의 研究 下	원 평안남도 대동군(大同君) 추을미면(秋乙美面) 울리(栗里)사지
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元在平壤栗里面二里柳洞(廢栗里寺址)
朝鮮古蹟圖譜 6	今在東京大倉美術館(平南大同君栗里面)



도 3 일제강점기와 지금의 울리면



도 4 울리사지 오층석탑 반출에 관련된 인물들 사진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현재 일본의 오쿠라슈코칸에 소장되어있다. 평양의 울리사지에서 일본 東京까지 무거운 석조물을 옮기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과정에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심에는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와 세키노 타다시, 오쿠라 가이치로가 있다(도 4). 본장에서는 이들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자료를 통해서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반출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한반도에서의 기록은 세키노 타다시에 의한 기록에서 처음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세키노 타다시는 1902년 고건축 조사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문화재를 조사하기 시작하며, 1909년 8월 23일 통감부 탁지부건축소 고 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고적조사를 위탁받았다. 이 조사는 1910년 8월 한일병탄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에 인계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고고학의 조직적인 조사의 시작이었으며, 전 조선에 걸쳐 건축·고분·성지·사지 등의 조사가 1915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⁸ 1909년 10월에 세키노 타다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1880~1959),⁹ 쿠리야마 준이치(栗山俊一, 1888~?) 등은 구한국 정부 촉탁으로 고건축 조사를 위해 평양에 도착하여 당시 평양일보 사장 시라가와 쇼우지(白川正

⁸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27.

⁹ 정인성, 「일제강점기 羅州潘南面古墳群의 발굴과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白山學報』 103 (2015).

治)로부터 대동강 남안 대동강면에 무수한 고분이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중 1기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¹⁰ 이것을 기점으로 대동강 주변의 고분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평양의 다각다층석탑 조사도 이때 이루어진다.

세키노 타다시 필드카드에 따르면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1911년 9월 25일에 조사를 하였으며, 사진은 1918년 발간된 『朝鮮古蹟圖譜 6』에 실린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일본으로 반출되어 오쿠라슈코칸에 소장되며 1933년 12월 14일 일본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다(표 2).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세키노 타다시가 필드카드를 적은 1911년 9월 25일에는 정확히 원 위치에 있었다(참고도판 1, 2). 하지만 불과 20년 사이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울리사지 오층석탑과 나란히 야외 정원에 전시되어있는 이천 오층석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한다.

〈표 2〉 울리사지오층석탑의 조사시기와 자료

순번	시 기	내 용	자 료
1	1911(明治44년)9월 25일	関野貞 현장조사기록	関野貞フィールド카드
2	1918(大正7년) 3월 25일	사진계재	조선고적도보 6권
3	1933년 12월 14일	일본 중요미술품지정	우현 고유섭 전집

이천 오층석탑은 고려시대의 일반형석탑 가운데 단층기단석탑에 속한다. 오쿠라슈코칸의 야외정원에 울리사지 오층석탑과 나란히 전시되어있다. 이천 오층석탑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점기 문서에 남아있어 울리사지 오층석탑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반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025934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 신청사 앞에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 탑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앞쪽으로 이천 오층석탑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도 5). 이러한 이천 오층석탑이 처음부터 일본 측에서 원했던 석탑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 11회 고적조사위원회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¹⁰ 이순자, 앞의 논문(2007), p.28.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유리건판(025934)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제 11회 고적조사위원회(1918)

도 5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

… 景福宮内ノ建物資善堂ノ傍ラニ相應セルモノハ平壤停車場前ニ有之六角七重石塔が最適當ナラスト申サレ …¹¹

… 石塔ハ明治三十九年停車場設置ノ時ヨリ今ノ地ニ在リ人ノ熟知セルモノナルヲ以テ之ヲ他ニ移スコト最適當ナラス …¹²

문서에 따르면 원래 오키라슈코칸 측에서는 흥복사 칠층석탑과 같은 다각다층석탑을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복궁의 資善堂 옆에 돌 석탑이 필요해서 당시 평양의 停車場 앞에 위치해 있던 흥복사 칠층석탑을 반출하려고 하였지만 이 석탑은 1906년(明治39년)부터 그 곳을 지키고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³ 따라서 흥복사 칠층석탑 대신 이천 오층석탑이 제 11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반출을 허가하는 판결이 1918년 11월 11일 결정이 나면서 이천 오층석탑은 이후의 어느 시점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울리사

¹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제 11회 고적조사위원회 오키라슈코칸 사카타니 요시로(坂谷芳郎) 서한 필사 (F058-032-003-0001).

¹²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제 11회 고적조사위원회 석탑양도 의안 (F058-032-002-002).

¹³ 자선당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39평자리 단아한 목조 건물이었다. 평면은 가운데 대청을 그리고 그 좌우에 각각 방을 두고 또 그 주위를 뒷마루와 협실로 둘러싸는 형이었다.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한양출판, 1997), pp.18-19.

지 오층석탑의 일본 반출 이유도 이천 오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자선당 주변을 장식하는 용도였다. 따라서 반출 시점을 자선당이 일본으로 이천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자선당은 세자와 세자빈이 거쳐하던 건물로 1430년에 건립되었다가 화재와 재건이 반복되고 마지막으로 1888년에 재건된다.¹⁴ 하지만 자선당은 1915년 施政5周年記念事業朝鮮物産共進會 개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각으로 분류되어 철거된다. 경복궁 안의 전각들이 철거되는 과정은 『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에 자세히 나와 있다.

即ち勤政殿前面ノ興禮門及之ニ連ナル廻廊其他東方空地ニ於ケル東宮, 資善堂, 丕顯閣, 侍講院等ノ諸建物竝ニ所在不明ノ門牆類ハ其利用シ得ヘキ石材類ヲ除キ建物十五棟門九箇所此總建坪七百九十一坪八合ヲ大正三年(1914)七月中代金一萬一千三百七十四圓七十錢ニテ公賣シ又障害立木二十六本ヲ同年九月中代金六拾參圓ニテ公賣シタリ¹⁵

자선당은 1914년 7월에 근정전 전면에 있는 흥례문과 이를 연결한 회랑, 동쪽 空地에 있는 동궁, 자선당, 비현각, 시강원 등 모든 건물과 문, 담장, 그 외의 이용하지 않는 석재들이 제거되었다.¹⁶ 건물15동 문 9개소(총 건평 791평)를 대금 11,374원 70전에 공賣하고 또 전시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수목 26본을 1914년 9월에 대금 63원에 공賣하였다.¹⁷ 이 기록에 따르면 자선당은 1914년 7월에 이미 철거가 된 상태이다. 이렇게 철거된 자선당은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오쿠라 슈코칸에 기증하여 옮겨진다.¹⁸ 1915년 겨울 도쿄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철거를 맡았던 오쿠라 가이하치로가 자선당의 부재를 인수하여 동경의 자택으로 이천 했다.¹⁹ 이후 1915년 겨울부터 1916년 9월까지 신축하고, 1916년 9월 30일에 ‘朝鮮館’이란 이름으로 개관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본으로 반출된 자선당은 오쿠라슈코칸의 제1, 제2, 제3의 진열관과 함께 건립되어 조선의 유물이 전시된다. 1918년(大正7년) 5월 1일 발행된 『大倉集古館陳列品目録』에는 ‘三三七一 五重

¹⁴ 박성진, 「조선 궁궐건축의 이천과 변용」, 한국예술종합학교미술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 106.

¹⁵ 朝鮮總督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朝鮮總督府, 1916), p. 53.

¹⁶ 자선당의 유구는 1996년 1월 29일 반환되어 왔다. 유구석은 모두 288개, 무게 110톤 분량이었다. 이 잔재는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고 남은 부재들로 이루어졌다. 김정동, 앞의 책 (1997), p. 30.

¹⁷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학연문화사, 2005), pp. 24-25.

¹⁸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일지 3』(학연문화사, 2016), p. 352.

¹⁹ 김정동, 위의 책, pp. 20-21.

塔 石造 一基 朝鮮 李朝時代' 라고 명기되어있는 석탑이 있다.²⁰ 이 석탑은 이천 오층석탑이 일 본으로 반출되기 이전의 석탑으로 울리사지 오층석탑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또 1920년(大正9년) 발행된 『大倉集古館陳列品要略』에 자선당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資善堂²²

前記, 小丘を 壽像に向つて 右手より 下り 行けば 平闊なる 高臺に出づ 此の高臺は 即ち 構外より 正門に向つて 右手なる 石壁上に 望まるゝ 臺地也. 臺上に 資善堂聳立せり. 此の 堂宇は 舊と 朝鮮なる 景福宮内に 在りし 一字にして 其の儘此處に移建せるもの也. 是れに 由りて 李朝時代に 於ける 宮殿建築様式の 一端を 窺ふを 得可し. 唯 正面階前なる 左右の 石造獅子は 舊と 蓋 平縣岳州城なる 一古城址に 遺存せしもの 也と 云ふ.

資善堂 傍らには 朝鮮高麗時代の 五重石塔婆 二基(三三七一, 三六一九)有り. 内一基(三六一九)は 舊と 朝鮮京畿道利川郡なる 郷校前の 一廢寺址に 遺存せしものにして 先頃朝鮮總督府より 當官へ 寄贈せられるもの也.

尙, 資善堂の 周圍には 支那清朝乾隆年代の 製なる 銅製大香爐五座(三三七三)朝鮮李朝時代の 瑩或に 陳設し 在りたる 石彫の 羊(三三七四)同華表大小四基(三三七五, 三三七六)同金童玉女立像各一軀(三三七七)翁仲二軀(三三七八)及び 支那清時代末葉の 製に 係れる 交趾窯の 塔二基(三三七二, 三三八〇)等 此處彼處に 配置せり.

이 기록은 자선당이 1916년 9월 30일 개관하고 난후 1920년 12월 1일에 오쿠라슈코칸의 건물의 위치와 전시되어있는 유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간된 책이다. 여기에는 자선당의 위치와 정원 주변에 유물을 전시해 놓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천 오층석탑과 三三七一번의 석

²⁰ 大倉集古館, 『大倉集古館陳列品目録』(精藝出版合資會社, 1918), p. 360.

²¹ 평양 역전의 6각 7층 석탑은 세간의 눈이 무서워 반출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천 5층석탑을 옮겨갔으나 이 석탑이 그리 만족치않아 산간 폐사지에 서 있던 울리사지의 8각 5층석탑을 그후에 약탈해간 것이 아닌가 한다. 처음부터 그 네들이 노린 것은 평양 역전의 석탑이 평면 6각의 특수탑이었기 때문에 이천탑과 같은 일반형 석탑은 당연히 만족치 않았을 것이며 그러므로 특수탑의 하나인 울리사지의 평면 8각의 5층석탑을 감쪽같이 반출해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영호, 『한민족독립운동사 5』(국사편찬위원회, 1989), p. 382. 하지만 현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3371번인 울리사지 오층석탑과 3619인 이천 향교탑은 번호로도 차이를 보인다. 또 이천 오층석탑은 1918년 11월 이후에 반출되기 때문에 1918년 5월 1일에 간행된 『大倉集古館陳列品目録』에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천 오층석탑은 울리사지 오층석탑이 반출된 이후에 반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²² 大倉集古館, 『大倉集古館陳列品要略』(精藝出版合資會社, 1920), pp. 145-147.



도 6 자선당 반출 이후의 사진과 중국탑

탑이 정원에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러한 설명과 맞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왼편에 탑이 보이지만 현재 오쿠라슈코칸의 야외정원에 전시중인 중국 탑으로 추정된다(도 6). 그 앞쪽으로 중국의 동제대향로가 5개 놓여있다. 아마도 3371, 3619 석탑 두기는 건물의 뒤편에 있는 듯하다. 우선 자선당이 옮겨지는 시점에 울리사지 오층석탑이 같이 이동했다는 가정을 해보고자한다. 이 시점에 『関野貞日記』에 세키노 타다시의 행적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1915년(大正4년) 4월 24일의 기록이다.

大正 四年四月目錄²³

二三 少雨陰 午前十一時朝鮮古蹟圖譜見本出來, 持チ來ル

二四 陰晴, 午前 宇佐美長官及寺内總督ヲ訪ヒ古蹟圖譜ヲ一覽ニ供ス

세키노 타다시가 견본으로 제작한 『朝鮮古蹟圖譜』를 가지고 1915년 4월 24일에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을 찾아가 보여줬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선당을 오쿠라슈코칸에 양도한 데라

²³ 関野貞, 앞의 책(2009), p.225.



도 7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6』(朝鮮總督官房總務局印刷所印刷, 1918), p. 747.

우치 총독을 세키노 타다시가 만난 시점이 자선당 건물 부재가 아직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은 시점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둘의 만남은 조선고적도보를 보여주는 형식의 만남으로 올리사지 오층석탑을 자선당의 정원 장식용으로 보내자는 협의를 오쿠라 가이히치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선당이 이 건 된 후에 올리사지 오층석탑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가정을 해보고자한다. 올리사지 오층석탑은 『朝鮮古蹟圖譜 6』에 보면 올리사지 오층석탑의 사진과 함께 탐명과 현 소재지가 쓰여 있다(도 7).

‘二九四八 廢栗里寺八角石塔 今在東京大倉美術館(平南大同郡栗里面)’

『朝鮮古蹟圖譜 6』에는 ‘大倉美術館’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재는 ‘大倉集古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集古館’ 용어는 1917년(大正6년) 8월 15일 이후부터 고쳐서 쓰였다는 것을 창립관련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올리사지 오층석탑은 1917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으로 옮

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반출된 시점은 자선당의 부재가 일본으로 반출된 1915년 겨울부터 1917년 8월 15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올리사지 오층석탑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장조사를 한 세키노 타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키노 타다시가 오쿠라슈코칸에 들러서 작업을 한 정황이 보여 눈길을 끈다.

大正五年三月目録²⁴

3월 11일 雪 午后 大倉美術館ニ往キ支那塲ノ拓本ヲ作ル

3월 13일 大倉美術館ニ往キ, 終日拓本ヲ作ル

3월 15일 午后 大倉美術館ニ往キ, 夜, 語彙編纂委員會出席

1916년 3월 11일에 눈이 왔으며, 오후에 세키노 타다시는 당시 오쿠라미술관(大倉美術館, 현 大倉集古館)에 중국기와를 탁본하기 위해 들른다. 이 탁본작업은 이후 13일과 15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자면 오쿠라슈코칸 측에서는 일반형석탑이 아닌 다각다층석탑을 정원에 장식용으로 쓰기위하여 한반도의 석탑을 물색하였다. 자선당의 공사기간 중인 1915년 겨울부터 1916년 9월 30일 사이에 세키노 타다시가 방문하여 탁본작업을 한다. 따라서 1916년 3월 오쿠라슈코칸을 방문한 세키노 타다시한테 자선당의 정원을 장식할 석탑의 추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세키노 타다시는 당시 평양의 다각다층석탑인 영명사 오층석탑, 흥복사 칠층석탑과 강원도의 월정사 구층석탑까지 1911~1912년 사이에 조사를 다 마친 상태였다(표 3). 따라서 정원배치용으로 사용할 다각다층석탑의 추천은 세키노 타다시에게는 쉬운 일이

〈표 3〉 세키노 타다시(関野貞)의 다각다층석탑 조사날짜

순번	시 기	내 용	자 료
1	·명치43년(1910) 10월 6일 ·대정11년(1922) 5월 12일	영명사오층석탑	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2	·명치43(1910) 10월 3일	흥복사오층석탑	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3		광법사오층석탑	사진촬영 유리건판 030379
4	·대정원년(1912) 11월 4일	월정사구층석탑	関野貞フィールド카드

²⁴ 関野貞, 앞의 책(2009), pp.245-246.

라고 할 수 있다. 또 시기를 좀 더 좁혀보자면 1916년 7월 4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 52호로 제정 공포된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공포되기 이전의 시기에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한국 내의 문화재는 모두 한국 안에 보존하자는 ‘현지 보존주의’를 기초로 실시된다. 이 보존 규칙에 따라서 등록된 유적, 유물 목록에는 다각다층석탑으로 등록번호 124번인 平壤 停車場前 七層石塔(홍복사 칠층석탑)이 있다.²⁵ 따라서 이 규칙이 반포되기 전에 반출이 이루어졌다면 세키노 타다시가 오쿠라슈코칸 방문 날짜인 1916년 3월 11일부터 1916년 7월 4일 이전에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栗里寺址 五層石塔의 양식적 특징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3.79m로 기단부와 탑신부 모두 팔각을 이루고 있는 오층의 다각다층석탑이다. 현재의 기단부는 지층 아래로 묻힌 부분은 보이지 않고 지상부분에 1단의 석재를 놓고 그 위로 불상대좌식기단이 놓여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불상대좌식기단은 하대석과 상대석에 연판이 새겨져있으며, 하대석에는 연판문마다 귀꽃이 새겨져 있다. 중대석에는 팔각의 면마다 화형안상이 장엄의 하나로 새겨져있다. 탑신부의 옥개석은 부재가 규칙적으로 줄어들어 안정감과 상승감을 동시에 주고 있다. 탑신부의 팔각 모서리에는 우주가 형성되어있으며, 우주는 겹 우주로 처리되어있다. 옥개석은 내림마루인 隅棟이 팔각의 옥개석마다 표현되어 있고 轉角의 反轉이 심한 각 모서리에는 귀꽃이 높이 솟아 있으며, 귀꽃의 바로 아래쪽에 풍탁공이 뚫려있다. 옥개받침은 5층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옥개석의 팔각의 모서리 아래 쪽에는 추녀를 선으로 번안하여 새겨 장엄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륜부는 결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 한 장을 살펴보면 기단부의 형태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모습은 1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又玄 高裕燮 全集4-朝鮮塔婆의 研究上』에 실린 사진 한 장에서 기단부가 삼단계단식기단인 것을 알 수 있다(도 8).²⁶

한국의 다각다층탑은 고구려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다각의 전통은 바로 고려시대로 전해지기 전에 통일신라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기단만 팔각인 도피안사 삼층석탑(865)과 석굴암 삼층석탑이 있으며, 추정이지만 탑신부만 팔각일 가능성이 있는 천관사지 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²⁵ 이순자, 앞의 논문(2007), p.52.

²⁶ 高裕燮, 『又玄 高裕燮 全集4-朝鮮塔婆의 研究 下』(열화당, 2013), p.431.



도 8 현재 울리사지오층석탑과 일제강점기 사진

(도 9).²⁷ 도피안사삼층석탑은 기단부가 불상대좌식기단으로 구성되어있고, 석굴암 삼층석탑은 기단이 팔각의 각을 이루고 있지만 불상대좌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천관사지 삼층석탑은 기단부는 방형이고 탑신부만 팔각을 이루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옥개받침을 각형의 층급으로 하지 않고 연판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통일신라시대의 팔각탑이라는 의미는 전체보다는 일부분에 해당되며, 도피안사석탑만이 불상대좌식기단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 고려시대의 다각다층석탑과의 연관성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 현재 고려시대 다각다층석탑은 울리사지 오층석탑을 필두로 영명사 오층석탑, 흥복사 칠층석탑, 광법사 오층석탑,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5기가 남아있다. 좀 더 장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명사 오

²⁷ 석굴암삼층석탑 또한 기단부가 팔각으로 구성되어있지만 탑신부를 살펴보면 초층옥개석+이층탑신석, 2층옥개석+3층탑신석, 3층옥개석+노반석이 한 돌로 제작되어 고려 11세기의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 현황보고서 上』(2015), p.349.

²⁸ 옥개받침에 연판문을 사용하고 있는 석탑으로는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영명사 오층석탑과 해인사 원당암 청석탑, 문경 미면사지부재 그리고 중주 창룡사 청석탑, 천곡사 칠층석탑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p>도피안사삼층석탑(865)</p>	<p>천관사지석탑 추정복원도</p>	<p>석굴암삼층석탑</p>	
고려시대			
<p>영명사오층석탑</p>	<p>홍복사칠층석탑</p>	<p>광법사오층석탑</p>	<p>월정사구층석탑</p>

도 9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다각다층석탑 사진

층석탑과 홍복사 칠층석탑과의 비교를 통해서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양식적인 특징을 기단부와 탑신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한다.

1. 기단부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삼단계단식기단과 불상대좌식기단이 합쳐진 복합식 기단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삼단계단식기단은 판석을 계단식으로 쌓아서 기단부를 만든 형태를 말한다. 불상대좌식기단은 불상대좌처럼 하대석, 상대석에 연판이 새겨져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삼단계단식기단과 불상대좌식기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석탑 유형으로는 청석탑이 있으며, 팔각이 아닌 방형의 석탑 가운데서도 불상대좌식기단으로 건립된 석탑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기단부는 삼단계단식기단과 불상대좌식기단을 나눠서 살펴보고 중대석의 화형 안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한다(도 10).

첫 번째 삼단계단식기단이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삼단계단식기단 위에 불상대좌식기단을 쌓은 적층식 혼합기단이다. 3개의 판석을 계단식으로 쌓은 후에 복련의 하대석, 중대석, 양련의 상대석으로 구성된 불상대좌식기단을 다시 올려놓은 형태로 건립이 되었다. 홍복사 칠층석탑 또한 지대석을 깔고 그 위로 부재의 높이는 불규칙하지만 삼단계단식기단의 형태를 하고 있다. 영명사 오층석탑은 안상이 새겨진 1단의 부재 위에 불상대좌식기단을 올려놓았다. 삼단계단식기단은 불상대좌식기단을 올려놓기 위한 일종의 檀과 같은 역할과 석탑의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이 합쳐져 새로운 양식의 등장을 알리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삼단계단식기단은 이후에 방형의 불상대좌식기단의 석탑과 청석탑 그리고 고려 후기 승탑에도 나타나며, 조선시대 석탑까지 영향을 주었다(도 11).

두 번째는 불상대좌식기단이다. 불상대좌식기단은 불상대좌와 마찬가지로 복련의 하대석과 중대석 그리고 양련의 상대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연판문의 문양은 다양하게 표현되며, 하대석에 귀꽃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혼재한다. 불상대좌식기단은 방형석탑과 다각다층석탑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불상대좌식기단 가운데 다각다층석탑은 평양을 중심으로 건립되며, 방형석탑은 개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건립이 이루어진다. 불상대좌식기단의 하대석 복련에는 귀꽃이 조각되어있다. 영명사 오층석탑의 귀꽃은 연판문 16개 귀꽃은 8개가 조각되어있

²⁹ 전민숙, 앞의 논문(2011), pp.72-75.

삼단계단식기단 + 불상대좌식기단



귀꽃



기단중대석 문양



영명사오층석탑

율리사지오층석탑

홍복사칠층석탑

도 10 다각다층석탑의 기단부 세부 비교



등명사지오층석탑

해인사원당암청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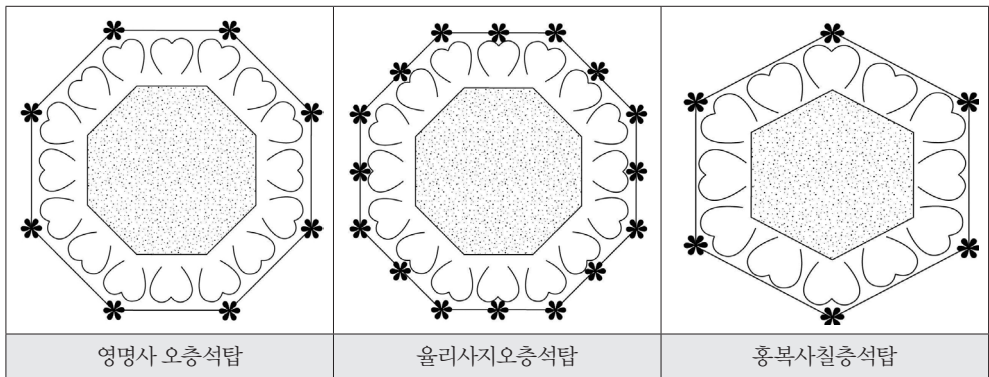
송광사자각국사징영탑
(1308)

보현사13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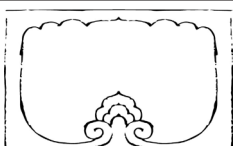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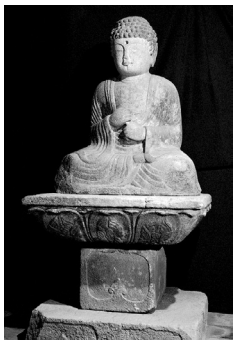



도 11 고려시대 삼단계단식기단의 사례

고, 홍복사 칠층석탑은 연판문 12개 귀꽃은 6개가 조각 되어있다. 하지만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연판문은 영명사 오층석탑처럼 16개를 새기고 귀꽃 또한 16개를 조각하였다(도 12). 일반적으로 불상대좌와 석등의 귀꽃은 울리사지 오층석탑처럼 모든 연판문에 귀꽃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귀꽃을 새기는 작업은 부조를 새기는 작업과는 달리 거의 丸彫로 조각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많은 공력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장엄을 爲始한 석탑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단 중대석의 화형안상이다. 화형안상은 기본적으로 眼象 아래쪽 중앙부분에 마치 꽃봉오리가 솟아오르는 형태의 디자인이 가미된 문양을 말한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기단 중대석의 팔면에는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모양의 화형안상이 새겨져있다(도 13). 이러한 화형안상은 다각다층석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일반형석탑인 학림사 오층석탑, 묘향산 보현사 구층석탑(1044)과 발산리초등학교의 부재가운데 탑신석으로 보이는 부재에 표현되어있다. 발산리초등학교의 부재는 화형이 아래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부분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 조금은 변형을 시도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형안상은 불상대좌의 중대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천 용문사 비로자나불상, 원주 용운사지 비로자나불상에 나타난다. 이들 불상의 중대석의 화형 안상은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화형안상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불상대좌 중대석의 화형안상은 中國 山西省 大同 下華嚴寺 薄伽教藏殿(1038)의 본존과 고려불화인 <觀經序分變相圖>(1312)에서도 표현을 찾아 볼 수 있어 나라와 시대를 뛰어넘는 양식적인 교류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주 미륵리사지의 석등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어 고려시대 석조물의 표면장엄 모티프(motif)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도 12 다각다층석탑 불상대좌식기단의 귀꽃의 위치

			
울리사지오층석탑 기단 중대석	학림사오층석탑	보현사구층석탑(1044)	군산발산리삼층석탑
			
예천청룡사 비로자나불상	중국 산서성 대동 하화엄사 박가교장전(1038)	〈관경서분변상도〉 부분, 1312, 견본채색, 133.3x51.4cm 일본 大恩寺 소장	충주 미륵리사지 사각석등

도 13 중대석의 화형안상의 예

2. 탑신부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탑신부는 기단부와는 달리 다각다층석탑 사이에서의 양식적인 공유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탑신부는 더 많은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석탑들과의 공유보다는 승탑과 석등처럼 형태가 다른 석조물과의 교류가 눈에 띈다. 또한 일반형석탑에 비해 건축적인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남아있어 세부적으로 목조건축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와 같은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탑신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주가 겹으로 나타나는 겹 우주 표현과 승탑 또는 석등의 양식적인 특징인 옥개석의 우동의 표현 그리고 건축적인 요소인 옥개석 처마의 추녀와 이매기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겹 우주의 표현이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전체 탑신석에는 겹 우주의 표현이 나타난다(도 14). 석탑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隅柱와 撐柱는 없어도 倒壞될 염려는 없다. 이는 목조 건축에서 석탑으로 변안되면서 남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주와 탕주는 면석에 돌

을새김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기둥과 같은 형태로 새겨진다. 우주는 모서리의 기둥이라는 한자의 뜻처럼 석탑의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모서리에 새겨지며, 시대와 상관없이 같은 방법으로 표현된다. 겹 우주의 본격적인 표현은 고려시대 석탑에서 나타나며, 한 겹과 여러 겹의 예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한 겹으로 표현한 예에 속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개성 인근지역과 충청·전라도지역의 석탑과 석조물에서 다수 나타난다.³⁰ 이러한 겹 우주의 표현은 비단 석조물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려불화 가운데 《觀經序分變相圖》(131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목조건축물의 기단부분에 우주를 처리하면서 겹으로 표현하였으며, 공예품인

<p>울리사지 오층석탑 초층탑신부</p>	<p>세키노 타다시 필드카드 (關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箱番号01-紙番号038)</p>	
<p>〈관경서분변상도〉기단부분1312, 견본채색, 133.3x51.4cm 일본 大恩寺 소장</p>	<p>〈금동대탑〉기단부분 155cm, 삼성미술관 리움</p>	<p>〈아미타삼존도〉대좌부분 1330, 견본채색, 119x62cm 일본 法恩寺 소장</p>

도 14 울리사지오층석탑의 겹우주 표현

³⁰ 개성인근지역의 겹 우주표현의 석탑으로는 성불사 오층석탑, 자혜사 오층석탑, 학림사 오층석탑, 신광사석탑부재를 들 수 있다. 충청도지역의 겹 우주 표현의 석탑으로는 향천사 구층석탑, 귀신사 폐탑부재, 만복사지 석조대좌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이지만 고달사지 승탑(국보4호)의 탑신석에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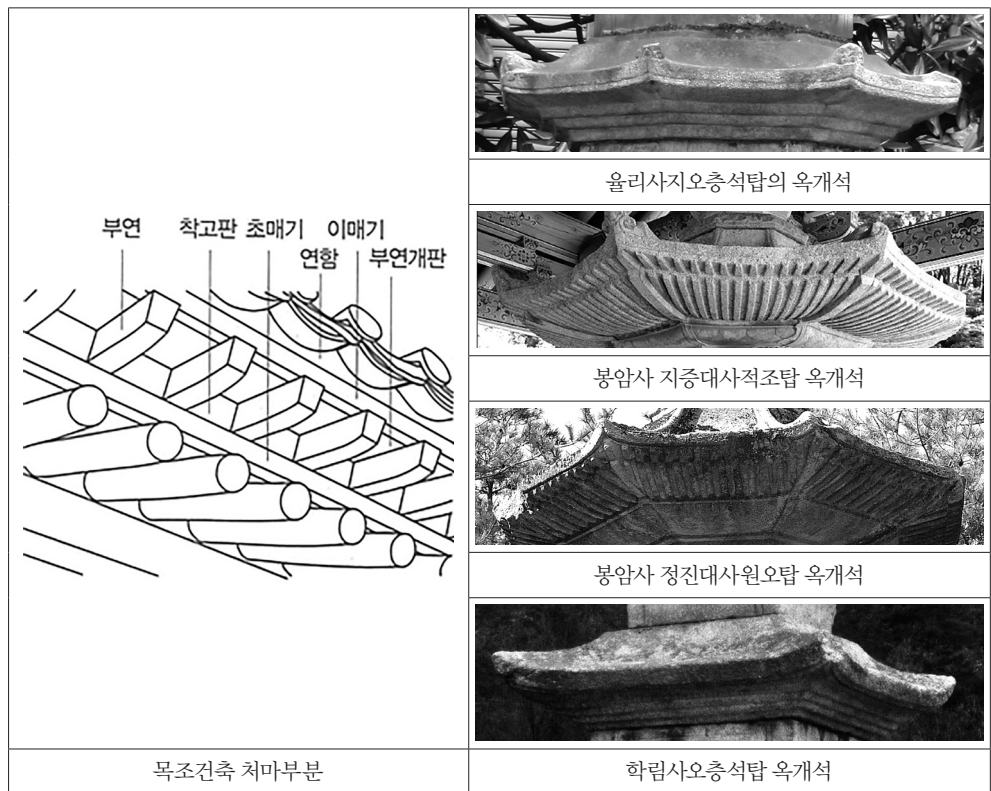
도 15 옥개석 구조의 비교

금동대탑 또한 기단부분을 겹으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목조건축물은 아니지만 불상대좌의 각진 부분을 살펴보면 금으로 두 줄의 선을 그어 대좌의 모서리를 장엄하였는데 율리사지 오층석탑의 탑신부의 겹 우주 표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회화의 특징 상 화려함을 추구하였을 수도 있는데 고려불화의 작품 가운데 대다수의 본존대좌는 각진 모서리 부분을 이중선을 이용하여 겹 우주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대적으로 양식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동과 추녀의 표현이다(도 15). 율리사지 오층석탑의 옥개석은 상층까지 3단 받침으로 구성되면서 옥개석에 우동의 표현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처리되었고 우동의 끝에는 귀꽃이 달려있다. 옥개석의 우동은 목조건축의 내림마루를 표현한 것이며, 우동과 함께 옥개석 아래쪽인 처마쪽에는 목조건축의 추녀와 사래를 선으로만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옥개석에 우동과 귀꽃이 표현되어있는 석조물은 승탑과 석등을 들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승탑의 옥개석에는 기왓골의 표현이 자세하게 되어있지만 귀꽃은 나타나지 않는다. 귀꽃의 표현은 대체적으로 고려시대 승탑에 많이 나타나며 석등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귀꽃이 표현된다. 옥개석의 우동과 귀꽃의 표현은 장엄의 하나로 석탑의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넣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옥개석의 이러한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목조건축에서 차용하였으며, 율리사지 오층석탑에 나타나는 표현은 고려시대의 승탑의 양식적인 교류와 석등의 전통적인 형식의 계승에 의해서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건축적인 요소인 이매기 표현이다(도 16). 목조건축의 지붕은 다양한 부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며, 부재의 이름 또한 다양하다. 이매기는 지붕에 쓰이는 부재로 부연 끝에 걸

린 평고대를 지칭하며, 서까래 끝에 걸린 평고대는 초매기라고 한다.³¹ 이러한 목조건축의 부재는 지붕을 만드는데 생략할 수 없는 부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석탑 옥개석의 전체적인 모델링(modeling)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옥개석의 끝부분에 선각으로 한 줄이 옥개석 전체에 표현되어있는데 이러한 선적인 요소는 목조건축의 기왓골 아래쪽에 표현되는 이매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매기 표현은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883추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승탑의 옥개석에는 서까래와 부연의 표현이 목조건축과 똑같이 표현되어있고 그 위쪽으로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옥개석과 같은 선각이 표현되었다. 또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965)의 옥개석에도 이매기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의 선각과는 달리 부연 위쪽을 한단 들여 파서 이매기를 표현하여 울리사지 오층석탑과는



도 16 이매기 부분의 상세 비교도

³¹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16), p. 173.

조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매기의 표현은 황해남도에 있는 학림사 오층석탑에도 나타나기에 목조건축 요소를 표현하려는 의지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의 이매기의 표현은 한반도 이남의 석탑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조사를 할 수 없는 북한지역의 석탑에서 다수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V. 栗里寺址 五層石塔의 편년과 의의

율리사지 오층석탑은 평양의 대동강변에 위치하는 율사에 건립된 다각다층석탑으로 고려시대 지역성을 반영하면서 건립된 석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오쿠라슈코칸에 소장되어 있는 율리사지 오층석탑과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이외의 다각다층석탑은 접근을 할 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다각다층석탑 가운데 기년이 있는 석탑이 없어 편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년이 있는 다른 유형의 석탑과의 양식적인 교류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율리사지 오층석탑의 편년은 지금까지 다각다층석탑의 범주에서 이해되어왔으며, 처음으로 고유섭이 석탑의 양식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10세기 후반으로 편년을 내렸다.³² 홍대한은 석탑의 귀꽃장식 등을 통해서 11세기로 판단했다.³³ 강병희는 영명사탑보다 후대 양식으로 편년하였으며, 羅末麗初에 건립되는 승탑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 초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³⁴ 전민숙은 11세기의 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장엄적인 요소와 양식적인 공유를 토대로 11세기로 편년을 내렸다.³⁵ 이렇게 학자들마다 편년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고려시대 석탑의 다양성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은 일반형석탑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석탑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석탑이 건립되면서 유형 간의 양식적인 공유가 빈번해진다. 또한 석탑뿐만 아니라 승탑, 석등, 탑비처럼 성격이 다른 석조물과의 양식적인 교류도 일어난다.³⁶ 따

³² 고유섭, 앞의 책(2013), p. 433.

³³ 홍대한, 앞의 논문(2012), p. 200.

³⁴ 강병희, 앞의 논문(1995), pp. 126-127.

³⁵ 전민숙, 앞의 논문(2011), pp. 56-58.

³⁶ 전민숙, 위의 논문, p. 84.

라서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양식적인 특징을 토대로 편년을 도출해 보고자한다(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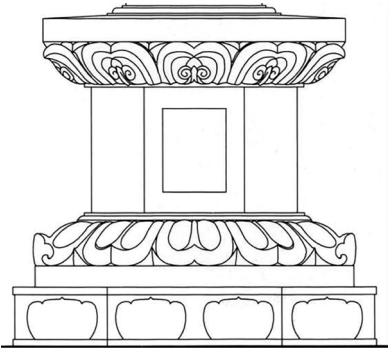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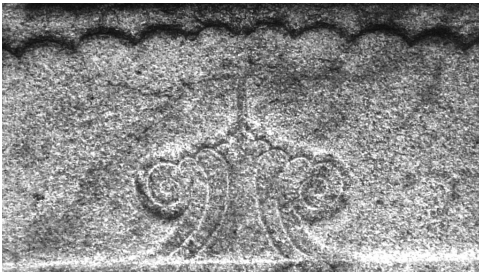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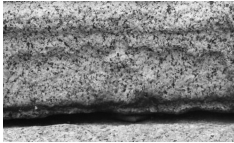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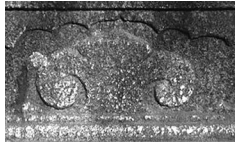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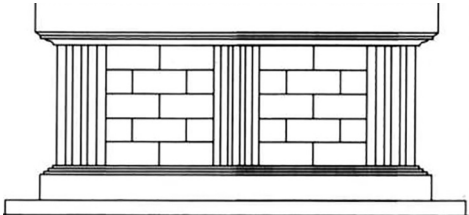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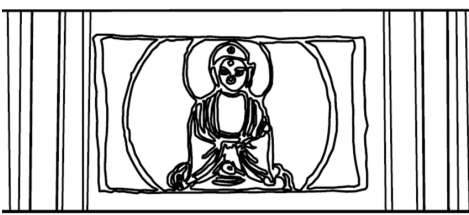
첫 번째로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특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불상대좌식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불상대좌를 모방해서 만든 기단으로 다각다층석탑의 모든 기단부에 나타난다. 이러한 기단은 방형의 석탑가운데 1021년 건립된 개성 흥국사석탑과 1044년에 건립된 보현사 구층석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1세기에 다각다층석탑처럼 팔각은 아니지만 방형의 형태에서 대좌의 형식을 띠고 있어 같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방형석탑의 불상대좌식기단은 평양 이외의 지역에 건립되며, 청석탑 또한 같은 형태로 건립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울리사지 오층석탑 불상대좌식기단의 중대석에는 화형안상이 팔각 면 모두 새겨져있다. 화형안상은 고려시대석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11세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탑의 하층기단의 면석에 자주 표현이 되며, 꽃봉오리 형태의 화형은 圖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화형안상은 석탑뿐만 아니라 다른 석조물에도 나타나는 문양으로 이 석조물들 또한 11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는 제천 사자빈신사지석탑(1022),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1031)이 있으며, 나주 서성문 안 석등(1093), 천안 천안사지당간지주(1010),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비(1025), 원주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1085)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겹 우주의 표현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에는 겹 우주의 표현과 여러 겹으로 표현하는 예가 공존한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전 층의 면석에는 팔각의 모서리에 겹 우주의 표현이 나타난다. 겹 우주는 장식적인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표현과 동일하게 여러 겹의 우주 또한 나타난다. 여러 겹으로 우주를 표현한 기년이 있는 예로는 1020년에 건립된 현화사 칠층석탑이 있다. 현화사 칠층석탑은 단층기단에 칠층으로 건립되었으며, 탑신석에 설법도 형식의 표면장엄이 사방 탑신석에 모두 새겨져있다. 기단부의 우주에는 여러 겹의 우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겹 우주의 표현은 금산사 청석탑을 포함한 몇 기의 청석탑의 면석에도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청석탑은 1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건립되는데 이러한 표현은 11세기에 유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³⁷

이와 같이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기단부와 세부 표면장엄을 통해서 고려시대 11세기의 석탑이 가지고 있는 양식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여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시대적인 배경과 지

³⁷ 전민숙, 「고려시대 청석탑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22(2016), pp. 110-111.

불상대좌식기단			
			
개성 흥국사석탑(1021)	보현사 구층석탑(1044)		
화형안상			
			
제천 사자빈신사지석탑(1022)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1031)		
			
나주 서성문안 석등(1093)	천흥사지 당간지주(1010)	원주 거둔사원공국사탑비(1025)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1085)
우주의 표현			
			
현화사칠층석탑(1020)	금산사 청석탑(11세기 추정)		

도 17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편년 모티프(motif)

역적인 전통이 더해져서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각다층석탑은 고구려시대에 건립된 팔각탑에 대한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팔각 탑은 시대를 나란히 하는 중국의 宋, 遼, 金의 탑이 팔각으로 건립되는 점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현재 평양에 건립된 다각다층석탑 가운데 유일하게 實見을 할 수 있는 탑으로 장식성이 뛰어나며, 세부적인 모티프(motif)가 화려함을 더해 준다. 특히 고려시대의 일반형석탑 또는 청석탑처럼 다른 유형의 석탑과 양식적인 공유를 통해서 건립되므로, 평양이라는 위치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자선당 앞의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서 반출된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반출은 석탑 조사를 한 세키노 타다시와 초대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리고 오쿠라슈코칸의 오쿠라 가이치로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고려11세기에 건립된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다각다층석탑이라는 지역적, 시대적인 양식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아픔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고려시대의 석탑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석탑이 건립되는 시기로 지역적으로 백제지역에는 백제계석탑이 고구려지역에는 다각다층석탑이 건립된다.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한 반도에 몇 기 남아있지 않은 다각다층석탑으로 지역적인 양식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일본 동경에 있는 오쿠라슈코칸에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 석탑이 고려시대에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 있게 된 배경에 궁금증이 남아있었다. 栗里寺址에 대한 기록은 19세기 중반에 편찬된 『大東地志』에는 栗寺라고 표기되어 있어 원래의 사찰이름이 栗里寺가 아닌 栗寺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위치 또한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달리 표시하고 있는데 대동강에서 멀지 않은 울동이 울리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1911년 9월 25일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1912년까지 모든 다각다층석탑 조사 또한 이루어진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이 일본으로 반출되는 원인은 자선당의 부재로 건립된 조선관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였다. 자선당은 1915년 겨울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재건되어 1916년 9월 30일에 조선관으로 개관된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반출은 자선당이 반출되는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선당의 재건이 진행되는 시점에 세키노 타다시가 1916년 3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오쿠라슈코칸을 방문한 기록은 통해서 울리

사지 오층석탑의 반출 시기는 1916년 3월 15일부터 조선관이 건립된 1916년 9월 30일 이전으로 약 6개월 사이에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반출시기를 좀 더 좁히자면 1916년 7월 4일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공포되기 전에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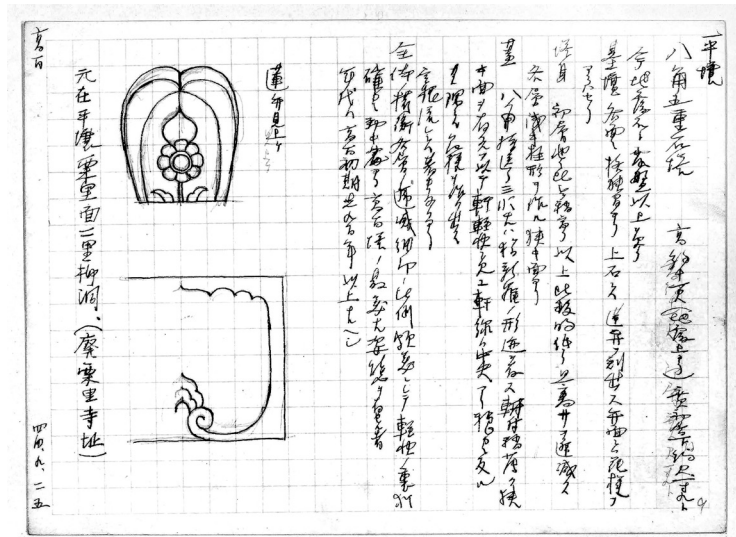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삼단계단식기단과 불상대좌식기단으로 구성된 적층식 혼합식기단이며, 탑신부는 오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삼단계단식기단은 판석을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기단을 말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일반형석탑과 청석탑, 고려 후기 승탑 그리고 조선시대 석탑에서도 나타난다. 불상대좌식기단은 불상대좌의 형태로 하대석과 상대석에 복련과 앙련으로 장엄을 하였다. 기단의 중대석에는 화형안상이 새겨져있으며, 불상대좌식기단의 하대석에는 16개의 연판마다 귀꽃을 새겼다. 울리사지 오층석탑 기단 중대석의 겹 우주의 표현은 고려불화와 금동대탑의 기단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옥개석의 우동과 추녀의 표현은 석등과 승탑에서 주로 표현되기에 다른 석조물들과의 양식적인 공유가 있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이매기는 처마 부분의 부연 위쪽에 들어가는 부재로 목조건축물에는 필요한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에는 옥개석 끝부분에 선각으로 목조건축의 이매기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장엄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다각다층석탑은 기년이 있는 석탑이 없기 때문에 편년을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고려시대 다른 유형의 석탑과 석조물들 사이의 양식적인 공유를 통해서 편년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특징 가운데 불상대좌식기단과 화형안상 그리고 겹 우주의 표현은 고려 11세기 석조물들에서 보여 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식적인 공유 부분을 통해서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 11세기에 건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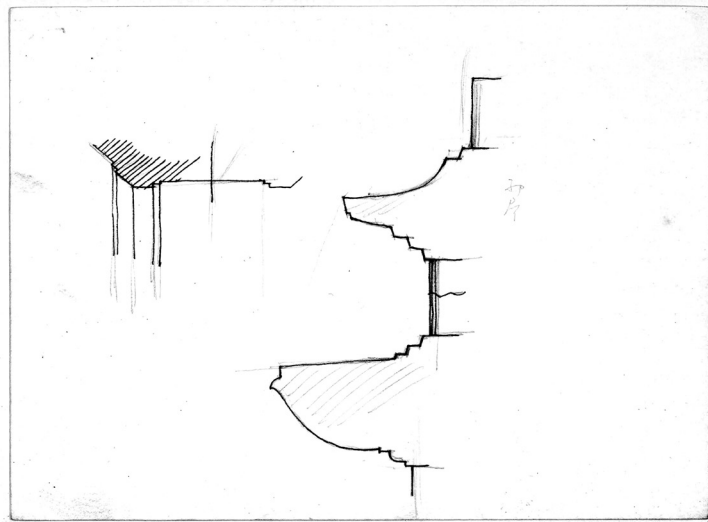
지금까지 울리사지 오층석탑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울리사지의 원위치와 일본반출의 경위와 시기를 추정하였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이 갖고 있는 양식적인 특징 특히 목조건축적인 요소가 장엄의 한 요소로 변안되어 표현되었다는 점까지 살펴보았다. 현재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이전 오층석탑과 함께 반환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정밀실측보고서와 함께 다양한 자료가 공개되어 더 많은 연구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주제어(key words)_ 평양(平壤, Pyongyang), 울리(栗里, Yulli), 울리사지오층석탑(栗里寺址五層石塔,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Yullisa Temple site), 세키노타다시(関野貞, Sekino Tadashi),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 Okura Shukokan), 세키노타다시 필드카드(関野貞필드카드, Sekino Tadashi's field card)

■ 투고일 2018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26일 |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22일 ■



참고도판 1 세키노타다시 필드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箱番号01-紙番号038 앞면



참고도판 2 세키노타다시 필드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箱番号01-紙番号038 뒷면

참고문헌

1. 사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大東地志』
『廣輿圖』
『海東地圖』
『朝鮮古蹟圖譜』

2. 한국어 문헌

강병희, 『韓國의 多角多層石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高裕燮, 『又玄 高裕燮 全集』, 열화당,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 해설집1-석조물편』, 199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중일 고대사지 비교연구-목탑지편-』, 2009.
김성우, 「중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5세기 고구려 사지의 역사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0-6(통권 308호), 2014.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16.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문화재청, 『景福宮-東宮地域重建工事報告書』, 2000.
박성진, 「일제강점기 조선왕조 궁궐건축의 이견과 변용」, 한국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1-8』, 민속원, 2009.
윤창숙, 「高麗石塔의 基壇樣式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둘』, 하늘재, 2003.
이주형·장석하,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팔각 건물지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유구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9-8(통권298호), 2013.
高裕燮, 「고려시대 다각다층석탑의 기원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31-2(통권 56호), 2011.

- 장춘화, 「觀經變相圖를 통해 본 高麗時代 建築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전민숙, 「高麗前期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 高裕燮, 「고려전기 석탑의 특성 연구」, 『東岳美術史學』15, 2013.
- 정규홍,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07.
- 鄭永鎬, 「高麗時代石塔의 特性에 관한 研究」, 『論文集』11, 1977.
- 高裕燮, 「在日 高麗石塔 二基」, 『文化史學』1, 1994.
- 정용해, 「고려돌탑의 변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11, 1988.
- 高裕燮, 「고려돌탑의 연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 1989.
- 조정식·김버들, 「韓國八角圓堂(願堂)石造浮屠의 建築的 要素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21-6(통권 200호), 2005.
- 진화수, 「韓國多角形多層石塔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한고은, 「7세기 전후 요잡의례에 따른 금당 외연부 요도시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홍대한, 「高麗 石塔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高裕燮, 「月精寺 八角九層石塔의 造塔背景과 建立時期 研究」, 『한국선학』38, 2014.

3. 동양어 문헌

- 関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學學術報告, 1904.
- 高裕燮, 『関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 朝鮮總督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1-3卷, 1916.
-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寶蓮閣, 1944.
- 大倉集古館, 『大倉集古館陳列品目錄』, 精藝出版合資會社, 1918.
- _____, 『大倉集古館列品要略』, 精藝出版合資會社, 1920.

국문초록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유형의 석탑이 지역성을 강하게 나타내며 전국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한다.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의 울리사지에 건립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는 일본의 오쿠라슈코칸에 있다. 울리사지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 栗寺面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현재 大同江面에 있는 栗里가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오쿠라슈코칸 측은 경북궁 안에 있던 資善堂을 일본으로 반출시키고 그 정원을 장식하기 위해 다각 다층석탑을 모색한다. 당시 무거운 석조물을 일본까지 반출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경제적으로는 오쿠라 가이히치로, 학문적으로는 세키노 타다시 의 보이지 않는 힘이 합해져 일본으로 석탑을 반출할 수 있었다. 경북궁 안에 있었던 자선당은 1915년 겨울 일본으로 반출되어 약 9개월의 공사를 거쳐 1916년 9월 30일 조선관으로 새롭게 재건된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서 석탑 반출의 가장 유력한 시기는 자선당의 공사 기간 중에 세키노 타다시가 1916년 3월 11일, 13일, 15일에 오쿠라슈코칸을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평양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1916년 3월 11일 이후부터 1916년 9월 30일 조선관 개관 시점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좀 더 시기를 좁힌다면,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발표된 1916년 7월 4일 이전이 되겠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전체가 팔각으로 이루어진 다각다층석탑으로 기단은 삼단계단식기단과 불상대좌식기단이 혼합된 적층식기단으로 구성되었다. 불상대좌식기단에는 16개의 귀꽃이 조각되어있으며, 기단의 면석에는 화형안상과 겹 우주의 표현이 되어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기단의 형식은 고려시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청석탑과도 양식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승탑, 석등과 같이 동시대의 석조물과의 관계도 엿 볼 수 있다. 옥개석은 삼단의 층급받침을 기본으로 우동과 추녀가 표현되어있다. 우동의 끝 부분에는 팔각 전체에 귀꽃이 조각되어있으며, 옥개석의 빗면 끝부분에는 이매기의 표현까지 나타난다. 이처럼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건축적인 요소들이 함축적으로 남아있어 세부적으로 목조건축물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의 불상대좌식기단은 고려 11세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단의 하나이며, 화형안상과 겹 우주의 표현 또한 11세기 일반형석탑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적인 특징 통해서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11세기로 편년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울리사지 오층석탑은 다각다층석탑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함께 지역양식과 시대양식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고려시대의 석조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석탑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Goryeo Period from the Yullisa Temple Site, Pyongyang

Jeon, Min sook*

During the Goryeo period, multiple types of stone pagodas repres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construct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Yullisa Temple site was originally constructed at the Yullisa Temple site in Pyongyang, the capital of Goryeo. It was looted and taken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is now located in the Okura Shukokan in Japan. The location of the site can be found on a map made during the Joseon period, which indicates Yulsa-myeon (栗寺面), a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it currently indicates Yulli (栗里) in the Daedonggang-myeon (大同江面).

Okura Shukokan looted the Jaseondang (資善堂) and took it to Japan, seeking a multi-angled, multistory pagoda in order to decorate the garden. The transfer of such a heavy stone structure to Japan was made possible by the following figures: the political help of Terauchi Masatake (寺内正毅, 1852~1919), economic help from Okura Kihachiro (大倉喜八郎, 1837~1928), and academic help from Sekino Tadashi (関野貞, 1867~1935). The Jaseondang Hall originally located in the Gyeongbokgung Palace was carried away in the winter of 1915 and newly reconstructed on September 30, 1916, after nine months of construction. Based on this situation, the most probable time period for the pagoda's looting is when Sekino visited Okura

* Curator,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Shukokan on March 11, 13, and 15, 1916, during the Jaseondang's construction,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erefore, the pagoda might have been moved between March 11, 1916, and September 30, 1916, when the Joseonguan Hall was newly opened. To narrow it down, it should have been before July 4, 1916, when *Regulations on the Preservation of Ancient Rites and Relics of Chōsen* (古蹟及遺物保存規則) was published.

As a multi-angled, multistory pagoda, each eave of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the Yullisa Temple site is octagonal-shaped. It has a layered stylobate, which is a combination of a three-stepped platform and a throne-shaped pedestal—the same type as those used for statues of the Buddha. There are 16 floral motifs sculpted on the throne-shape pedestal. On the surface of the middle base, and of the body, floral roundel patterns and double corners are represented, which enhance the pagoda's level of delicacy. The style of the base is consistent with that of blue-stone pagodas, which were popular in the Goryeo period. It is also related to other contemporaneous stone structures, such as monk stupas and stone lanterns. The stone roof of the pagoda is supported by a three-layered pedestal with a sloped roof ridge and slanting rafters. At the ends of the eight roof ridges, floral patterns are sculpted. There is even a representation of eave supports at the end of the roof section. The five-story pagoda retains these implications of wooden architectural elements, which is enough to characterize it as a smaller version of a wooden structure. The throne-shaped pedestal represents a unique style base that appeared in the 11th century of Goryeo. In addition, the floral roundel motifs and representations of the double corners are main features of 11th-century pagodas. Based on the stylistic features, the pagoda can be dated back to the 11th century. The five-story pagoda not only presents unique characteristics of a multi-angled, multistory pagoda, but also epitomizes both regional style and period style. It is, therefore, the most representative pagoda, which displays the manifold visual culture of stone sculptures.